

☎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3-8702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 /의무팀장 이은혜(6540)/ 탐원 박주영(6542)/E-mail:juuuuuuuuuu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41-11762호

시행일자 2025. 1. 31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한센병 조기진단을 위한 적극적 검사 협조 요청 (질병관리청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-415(2025.1.23.)

3. 우리나라 한센병 관리는 선진국에 부합하는 퇴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, **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년 5명 내외의 신환자**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
* 한센병 다발생 국가(WHO): 인도, 브라질, 인도네시아, 콩고, 모잠비크, 방글라데시, 에디오피아, 나이지리아, 네팔, 소말리아, 탄자니아, 마다가스카, 스리랑카, 필리핀, 앙골라, 남수단, 미얀마, 코디부아르, 수단, 이집트, 코모로, 키리바시, 마이크로네시아

4. 한센병의 경우 나균에 의해 발병되는 감염병으로 **피부와 말초신경에 병변을 일으켜 진단이 늦어질 경우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조기진단이 중요하나, 현재 의료현장의 한센병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져** 최근 5년간 초기에 진단 받지 못한 사례가 61.1%(11/18명)였습니다.

5. 이에, 질병관리청에서는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"**한센병**" 의심 증상(발진, 구진, 결절 등 **피부증상** 및 **신경손상** 동반)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경우 검사기관인 **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**(031-452-7091~4, 경기도 의왕시 원골로 59)에 적극적으로 검사를 의뢰하여 줄 것을 불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요청해온 바,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불임

1. 질병관리청 공문 1부.

2. 국내 한센병 발생동향 및 주요증상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